

## 양성당중수기(養性堂重修記)

1956\_황택수(黃澤秀) 지음\_37.5×80.0cm



1956년 양성당을 중수한 내역을 기록한 기문이다. 김장생의 11대손 김진수에 의해 중수가 추진되어 충청남도 고적현창회에서 기증한 돈 십오만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중수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글은 황택수(黃澤秀)가 지었다.

### 양성당重修記

夫物之消長天里也事之盛衰人道也日月之盈虛寒暑之 往來草木之榮枯樓閣之塵靡無非天人之際消長盛衰所 閱也噫里養性堂昔日 文元公沙溪金先生因其遺基 肯構者也而以養性名之 先生道學爲百世之宗 先生之胤 慎獨齋 文敬公亦以道學繼述可謂瓊珠增光鳳毛成章于 斯時也滿座縉紳名公巨 卿文章大筆雷鳴於世領袖儒林 冠冕相望從師負笈絃誦熏炙如坐春風之中仰沾時雨之 化赫赫焉彬彬然其盛運也如月之望暑之夏也嗚呼國祚 多艱世教日弛紀綱崩頽士氣漸降於是乎講帳冷落函筵 舊瑟而乃歲久年深風損兩壞柱摧退落屋漏草生樵堅牧 兒謂以前者之郁郁繁華如許今日之零零寂 寞況以有志 者見之則豈無寒心之歎乎余常恐懼彷徨已歷多年終無 奈何幸而靈芝有根醴泉未竭 先生之十一代孫千洙甫 志在慕先與之爲謀百方周旋于忠清南道賢創會寄贈金 十五萬圓乃創重修補 瓦改棟竝功於丙申季夏之晦其經 之營之之謨僅以輪焉來賁多士盡美東南杯盤相賀追感 於既往之 跡興起於今日之風方可謂消者長衰者盛枯木 向榮塵樓流靡是乃理觀天人之際消長盛衰所閱信矣噫 後之人繼而盡力加工修葺則庶斯堂之永保矣亦不無叙

實短引謹記如右

權君紀元四千二百八十九年八月 日

後學昌原黃澤秀謹記

양성당중수기[養性堂重修記]

대저 물건이 사라지고 자라남은 하늘의 이치이고, 일이 성하고 쇠함은 사람의 도리이고, 해와 달이 차고 기울며 춥고 더움이 갔다 왔다 하며 풀과 나무가 꽃피고 시들음과 누각이 먼지 끼고 선명함은 하늘과 사람 관계의 사라지고 자라남과 성하고 쇠함의 관계 아님이 없는 것이다.

아! 숲마을의 양성당은 옛날 문원공 사계 김선생이 그 선대의 남긴 터에 세운 것인데, 양성으로 이름지어 선생의 도학이 백대의 종주가 되었고, 선생의 아들 신독재 문경공이 또한 도학으로 이었으니, 구슬이 빛을 더하고 봉황이 문채를 이루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자리에 가득한 선비들과 유명한 재상과 문장 대가들이 세상을 올렸으니 유림의 영수이며 높은 벼슬이 서로 바라보였다. 스승을 따라 책을 지고 와서 공부하고 훈도하여 봄바람 속에서 앉아 있는 듯 하였으며, 때맞은 비의 덕화에 젖은 듯하였다. 그 빛나고 문채가 성하는 운수가 보름달 같고 더운 여름 같았도다. 오후라 국운에 어려움이 많아서 세상의 교화가 날로 해이해지니 기강이 무너지고 선비의 기상이 쇠퇴하였다. 이에 와서는 강당이 쓸쓸하고 스승의 자리가 쓸렁해지고 세월도 오래되니 바람과 비가 몰아치고 기둥이 꺾이고 지붕에 물이 새게 되었다. 나무꾼과 목동들도 이르기를 '옛날에는 성대하고 변화했을텐데 요즘은 이렇게 적막하단 말인가?' 할 것인데 더구나 뜻이 있는 자가 보면 어찌 한심스러운 탄식이 없겠는가? 내가 늘 두려워하고 방황한 지가 여러 해 되었지만 마침내 어찌할 수 없었는데, 다행히 영지에 부리가 있고 예천이 마르지 않아 선생의 11대손 천수 씨가 선조를 사모하는 뜻이 있어 함께 도모해서 백방으로 주선하여 충청남도 고적현창회에서 기증한 돈 십오만원을 가지고 중수를 시작하여 기와를 보수하고 기둥을 고쳐 병신(丙申, 1956) 6월 그믐에 공사가 끝났다. 그의 경영한 힘으로 겨우 새롭게 할 수가 있었다. 찾아온 손님은 동쪽 남쪽에서 모여들어 술과 안주로 서로 하례하였다. 지난 날의 자취에 감동하고 오늘의 풍토에 흥기하였으니 사라지던 것이 자라나고 쇠하던 것이 성해지고 마른 나무에 꽃이 피고 먼지 낀 누대에 단청이 새로웠다. 이것이 바로 이치이며 하늘과 사람의 즈음에 소장하고 성쇠함에 관계됨을 알겠도다. 아! 뒷사람이 힘을 다하여 수리한다면 거의 이 땅이 길이 보존하리라. 사실을 서술하는 짙막한 글이 없을 수 없어 삼가 위와 같이 기록하였다.

단군기원 4289년 병신(丙申, 1956) 8월 일에 후학 황택수는 삼가 기록하다.

※ 번역: 『돈암서원(頓巖書院) 고문서 기록화 사업 최종보고서』, 2015,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